



1



2



3



4



5



6

- 1 대한결핵협회 대전충남지부 직원들이 잠시 짬을 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.
- 2 협회 청사 전경과 새롭게 리모델링된 실내
- 3 한 달에 한 번 결핵 홍보를 위해 어깨띠를 메고,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직원들
- 5 6 대전충남지부 복십자의원에서는 지금 독감예방접종이 한창인데, 결핵 이외에도 호흡기질환, 노인질환 등으로 진료영역을 확장하고 있다.

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!

글 박연숙(본지기자)

대한결핵협회 12개 시·도지부 산하에는 9개 복십자의원이 운영되고 있다.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이하는 대한결핵협회의 역사는 우리나라 결핵 퇴치사업이 걸어온 길이기도 하다. 하지만 그 세월의 더께를 보여주듯 의료환경도 많이 달라졌고,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시설도 노후화되었다.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최근의 의료환경 속에서 협회가 민간 병원과 경쟁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다.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변화가 일어났다. 노후된 의료기기, 장비를 바꾸고 오래된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는 등 복십자의원이 새롭게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이다. 특히 결핵과 호흡기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면서 각 지부 병원별로 진료영역을 특화하거나 확장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더욱 가까운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대전·충남지부 복십자의원도 지난 해 병원 리모델링을 감행했다. 그리고 1년 후 진료 환자가 50% 이상 증가하는 신장을 보이고 있다. 단지 리모델링만이 원인은 아니다. 대한결핵협회 대전·충남지부는 올해 2월 서울백병원 과장을 지낸 이승재 원장을 영입, 결핵진료는 물론 감기 등 호흡기질환, 노인성 질환 등까지 적극적인 진료사업에 나서고 있다.

대전·충남지부 복십자의원을 찾은 날은 독감예방 접종을 맞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. 민간 병원에서 2~3만원씩 하는 예방접종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,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속속 병원을 찾아오고 있다고,

진료를 막 마친 환자는 “가까운 곳에 이런 병원이 있어 좋아요, 전엔 지나가다 보고 결핵만 진료하는 줄 알았거든요.”라며 복십자의원의 변신을 반가워했

다. 특히 오랫동안 결핵치료를 받아온 환자분들은 마치 ‘호텔같이졌다’며 좋아한다고,

지난해부터 대한결핵협회는 전국 지부에서 매월 1회씩 결핵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. 결핵퇴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결핵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판단에서였다. 대전·충남지부 역시 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,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지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파스에 복십자의원 소개를 넣어 배포하고 있다. 대전역 인근과 중앙시장, 협회 청사 부근 등이 주요 홍보 무대다.

이승재 원장은 “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는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. 결핵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, 그러다보면 노인분들 중에는 신경계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기도 하고,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을 앓는 분들도 있어요, 더 조심하시도록 한 마디 더 해드리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.”라고 말한다.

1956년 대한결핵협회 충남지부로 첫 발을 내디딘 후 1970년 현재의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했으며, 1977년 후 복십자의원을 증축하며 결핵치료의 산실로 소임을 다해왔던 대전·충남지부, 학생검진, 건강검진, 주민검진, 결핵균검사 등 건강검진·진단사업과 진료사업, 세균검사업무 등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장해 왔다. 그리고 작년 복십자의원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결핵치료는 물론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노인성질환 등으로 진료영역을 넓혀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단체로 거듭나고 있다. †